

# 힘모아서 모든 일 척척 해결합니다

전주에서 빵집하는 세동서

**이춘근**(새풍년제과) **김봉춘**(효자당) **이점운**(이삭베이커리)

한집에서 칠년을 함께산 막내처제는 그에게 처갓집 식구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여동생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처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하필이면 자신처럼 빵만드는 사람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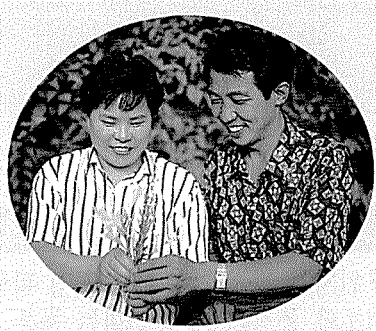
“제과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결혼을 찬성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그때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춘근씨의 말이다.

그 생각은 큰언니 최순엽씨도 마찬가지다. 열살이나 터울이져서인지 더 애뜻한 마음이 가는 막내만은 ‘조금은 편한 곳’으로 시집 가기를 바랬는데, 언니 마음을 이는지 모르는지 기술인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결국 한달을 울며서 매달린 막내 최순아씨는 간신히 허락을 받았고 지난 4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며칠후 이삭베이커리라는 제과점을 오픈했다. 우연찮게 세동서가 제과점을 경영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다.

이제 서른 아홉의 이춘근씨, 그가 제일 만동서다. 열두살때부터 제과일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이제 경력 25년째다. 둘째 동서 김봉춘씨, 지난 해에야 겨우 자신의 제과점을 갖게 됐다. 정말 어렵게 마련한 제과점이다. 막내 동서 이점운씨, 그는 사실은 이춘근씨와 한술밥을 먹던 식구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의 제과점에 공장장으로 있었으니 말이다.

“모두들 재미있게 만났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서로들 인연이 닿았기 때



이춘근씨의 바람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뉘던 사랑을 이젠 이웃으로 넓히는 것이다. 홀출 단신 그가 이제는 열식구의 대장이 됐다.



축구, 배구, 달리기... 못하는 운동이 없는 둘째 고집세고 무뎉뎉하기로 소문난 그이지만 아내 사랑은 유별나다.



이점은 이점운씨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운 새내기부부 세째네. 형부와 언니들의 영향인지 기술인과 인연을 맺어 결혼을 했고 요즘은 결눈질로 배웠던 제과점 일을 직접하느라 정신이 없다.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명이 한 직장에서 만났으니깐요.” 이춘근씨의 말이다.

### 막내가 올 4월에 결혼하면서 세동서가 제과점 경영하게 돼

이춘근씨가 큰언니 최순엽씨를 만난 곳은 전주 풍년제과에서 였다.

“제가 풍년제과에 들어간 것이 열두살때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저는 제과점에 취직하면 적어도 배는 굶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그 당시 얘기다.

최순엽씨 역시 오촌아저씨였던 김생수 사장의 주선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둘은 만났고 육년을 사귀었다고 한다.

물론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최순엽씨는 남편이 ‘정’이 많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다. 그가 정이 많다는 것은 집안 식구들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형부 정 많은 것은 알아줘야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써 주고 오빠 같이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둘째 처제 최순금씨의 말이다.

“짜장면 사건도 있어요. 큰 언니가 첫아이를 낳을때엔 밖에서 기다리던 형부가 출산소식을 듣고 그때까지 배고픈 것을 참다가 혼자서 중국집에 가서는 짜장면을 시켜 놓고 운일도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 외롭게 자라신 형부가 드디어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둘째 동서에게 술을 권하는 큰형님의 손길이 따사롭다

자신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피붙이를 만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최순아씨의 말이다.

홀홀 단신으로 시작한 그가 이제는 열식구를 거느리는 사람이 됐다. 작은 동서네 식구가 넷, 얼마전에 결혼한 막내네, 그리고 늦둥이 막내아들까지.

둘째 최순금씨와 김봉춘씨도 제과점에서 만났다. 둘은 이리 풍년제과에서 만났다.

“둘째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제과점에서 8년동안 공장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 12월에야 드디어 그곳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인계하신 거죠.” 큰 동서의 설명이다.

“우리 셋중에서 둘째형님이 제일 건강합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십니다. 체육대회 때면 항상 상을 독차지 하죠.” 이점운씨의 자랑이다.

“우리 셋이 형제같지 않습니까. 둘째 동서와는 워낙 옛날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해서 친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 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이 끼어서인 것 같습니다.” 형님의 마무리 말씀이다.

### 각자 일하는 곳에서

### 지금의 천상배필 만나는 우연

그들이 이렇게 친해 진 것은 뭐니뭐니해도 ‘동

질감’이 가장 크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대화 내용도 주로는 제품에 대한 얘기, 장사에 대한 얘기다. 한쪽 편에서 자매들끼리도 살아가는 얘기다. 제과점 경력으로 봐서 남편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막내 최순아씨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부가 그릇을 사왔는데 너무 큰 것을 사왔더라구.”

이주 손쉽게 가격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순간이다.

“정보는 아주 빠릅니다. 한사람이 듣는 것에 비해 세명이 들으니 정보량이나 속도가 세배 정도는 빠르지요.” 큰 언니의 자랑이다.

그래도 집안의 남자들은 자주 모여 술자리도 갖고 사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에게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

“집안일과 장사를 함께 하다보니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은 손수하는 일이 더 많아서요. 따라서 한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누구 하나는 남아서 가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섯 명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니 최순엽씨의 설명이다.

그래도 없는 가운데 이들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낮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면 밤에라도 시간을 내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둘째 내외가 빠지기는 했지만 축구를 핑계로 막내와 오래간만에 함께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다.

“월드컵 대회때 한국과 독일전이 새벽 다섯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언니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비록 우리편이 경기에 져서 아쉬웠지만 기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막내 처제의 자랑이다.

그래도 이춘근씨는 책임감이 크다. 그동안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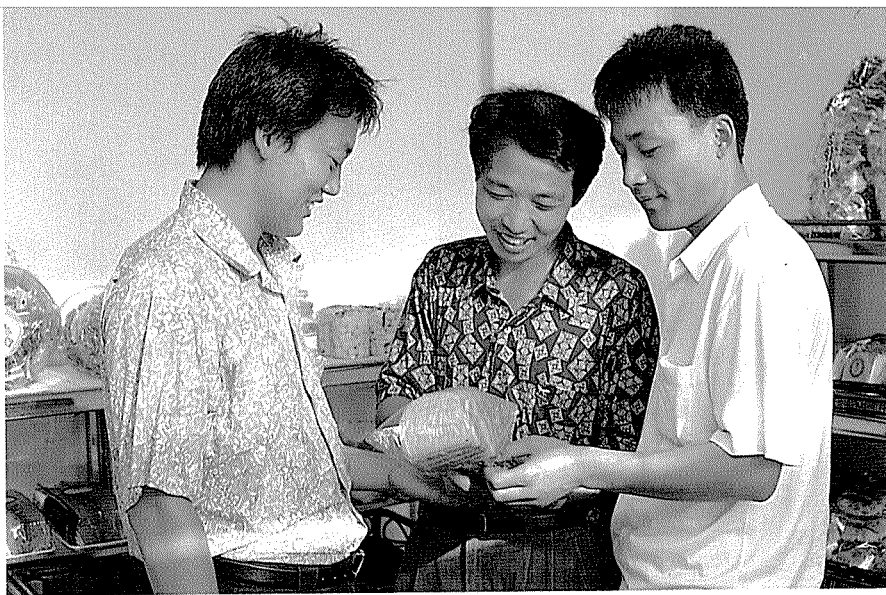
세동서가 모두 제과점을 경영하는 재미있는 집안. 그들 모두는 기술자 출신으로 각자의 아내를 매장에서 만나 연애 결혼에 성공한 능력있는 남자들이기도 하다. 아직은 어렵지만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을 잇는 즐거움이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

웁는다는 농담으로 대화에서 결코 쳐지지 않는다.

“너희집은 팔빙수 얼마 받니?”

“짜게 받아. 손님들이 맛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빙수 그릇이 큰 것 같아.”

“우리집 그릇이랑 똑같은 것 같구만. 어제 형



이춘근, 김봉춘, 이점운씨 등 세동서 세사람이 모두 기술인 출신이라 제품에 관련한 모두의 눈길이 날카롭다

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가족들의 정기모임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한달에 한번은 꼭 함께 모여서 야외회도 가고 회포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 목표입니다. 큰형으로서 처제나 아랫동서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춘근씨는 솔직히 처음에는 같은 전주라는 지역에서 제과점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이왕이면 떨어져 살면서 가끔씩 만나는 것이 더욱 정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막내처제가 결혼을 해서 제과점을 오픈할 때는 전주에서 약간 떨어진 삼례에서 시작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같은 지역에 있으니 정이 더 들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와주는 것도 동서들이다.

“우리는 비상연락망이 철저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집에서 일이 많을 때는 둘째나 셋째에게 전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 오거든요. 그리고 주문이 많아서 손이 필요할 때는 아예 주문양을 나눕니다. 서로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걱정안합니다.” 이춘근씨가 말하는 장점이다.

### 한동네에 살다보니

#### 혼자서 할일 세명이 분담해서 처리

그외에도 아침에 재료구입 때문에 시장에 볼 일이 있을 때는 절대 그냥 가는 일이 없다. 꼭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곳은 일은 형님이나 처형이 주로 합니다. 우리나 막내네는 일손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형님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지요” 둘째 김봉춘씨의 설명이다.

“요즘은 서울이나 전주지역에서 세미나가 있으면 형님께서 참석하기를 종용하십니다. 이왕이면 함께가서 배우자는 뜻이지요. 또 타지역을 돌아보고 오시면 새로운 제품이나 요즘 유행하는 빵들을 알려주십니다.” 막내가 덧붙이는 그들만의 장점이다.

“주로 아내가 일을 다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빵만 만들줄 알지 그외에는 잘 모릅니다. 손님관리부터 매장관리까지 모두 아내의 몫입니다. 최씨집안 여자들 대단합니다. 고집도 세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꼼꼼한 일처리나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이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습니다.” 이춘근씨가 자랑하는 최씨 집안 여자들 얘기다.

두동생에게 언니가 가장 도움이 될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어려울 때다. 경험이 많은 언니가 이들을 위로해 주는 역을 맡는다. 일이라는 것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는 언니의 말한마디가 어려움을 모두 잊게 해 준다. 정말 똑같은 소리로 웃는 그들 형제는 요즘은 컷트머리로 똑같이 머리형을 했다.

이춘근씨는 요즘 주변사람들로부터 세동서가 제과점을 하는 곳이라는 소개를 종종 받는다. 그에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래도 나쁜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동서가 제과점을 한다는 얘기 뒤에 잘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크게 일 귀 놓은 것은 없지만 잘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일을 동서들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한다.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돕고 싶습니다. 동서들이 각자 일도 분담하고 함께 찾아간다면 더욱 좋겠지요. 아마도 조만간 그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춘근씨의 바람이다.

그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자금의 아내와 처제, 동서들을 만나게 해준 이곳에 그도 무엇인가를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그의 소망은 멀지 않은 듯하다. 하나를 얘기하면 열가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달팠던 시간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잊게 해주는 이들. 그속에서 느끼는 사랑. 그들이 꿈꾸는 또하나의 삶이다. (글 김주희) □



똑같은 웃음소리, 컷트형의 머리모양 등이 닮은 세자매, 그러나 알뜰하고 꼼꼼한 살림꾼씨가 더 많았다